

P43. 결혼생활의 질, 이혼장애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Marital quality, barriers to divorce, everyday stress and adjustment after the divorce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손정연*,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교수

Jeong-yeon Son*, Gyoung-hae Han

Graduate Student,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혼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혼의 영향을 진단한다는 의미에서 이혼 후 적응과 이혼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함에 있어, 이혼이라는 ‘사건’ 이전에 적응을 요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혼 후에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도 연구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혼 전 결혼생활의 질, 이혼장애요인, 이혼 후 겪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이혼 후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렇듯 이혼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생활의 질, 이혼장애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이혼경험이 있는 남녀 3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지난 결혼생활의 질, 이혼장애요인, 이혼 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기술통계, t-검증,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전 결혼생활의 질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생활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혼장애요인과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는 각 하위영역에 따라 남녀간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셋째, 이혼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이혼한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이혼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이혼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이혼한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혼 과정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과정에서의 경험과 그 효과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이혼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성별에 따라 달리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